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金 滄 玉 주 간 文 忠 誠
부주 간 高 榮 哲 편집장 金 美 辰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57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un

1992년 10월 13일 화요일

1

일부 단대·학과, 또 교양선택목 줄여 교과개편위서 세운 원칙도 안 지켜 “오는 16일 개편위서 반드시 재조정돼야”

내년부터 개편되는 교양교과 과정이 단대별 심의과정중 일부 단대 및 학과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세부 교과목이수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선택목이 극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마련된 교양교과과정 편성안은 9월 25일까지 각 단대별로 국사·철학 및 계열기초에 대한 별도의 이수규정 마련 작업을 끝냄으로써 오는 16일 있을 교과과정개편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총장의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각 단대가 선정한 영역별 교양선택목 교양필수 과목 이수규정을 보면, 일부 단대학과 학과에서 교과과정개편위가 마련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가 하면, 종전의 교과과정을 거의 그대로 설정,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케 함과 아울러 교양과목의 선택폭을 넓혀준다는 당초의 교양과목개편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오는 10월 16일 있을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교과과정개편 당시부터

계열기초과목을 최소화하고 교수들의 과목이기를 자율해 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열 12학점, 자연계열 15학점, 예체능계열 16학점까지 선정토록 돼 있는 계열기초과목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최대 학점을 채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그만큼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문대의 경우 8개 단대 중 유일하게 국사·철학과목(법정대과와 농과대의 수의학과·농학과·축산학과는 국사만 필수 지정)을 필수로 지정함에 따라 필수과목 18학점, 계열기초 12학점, 인문·사회·자연·예체능 등의 과목을 12학점 이수토록 규정(사회학과를 제외하고는 영역별 이수규정을 따르지 않음)했다.

반면 농과대의 축산학과, 해양대의 증식학과, 해양학과 등의 경우 계열기초과목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고, 인문대 사회학과와 농대 수의학과 등에서는 계열기초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개편안에는 교양선택목의 경우 8개영역으로 나누어 교양필수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토록 했는데, 인문대학의 경우(사회학과 제외)는 이 원칙을 어기고 종전의 교과과정을 큰 변동없이 선정하고 있다. 즉,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예체능 과목중 각 3학점씩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대학의 경우 교양필수에서 필수로 지정됐던 구어영어를 제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줄곧 지적되어 왔던 교수들의 과목이기에 기인한 것인지, 교수들이 교양교과과정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자칫하면 일부 학과 및 단대의 인식부족으로 교양교과과정개편작업을 말뚝인 개편이 될 우려가 크다.

선택목의 기회를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각 영역별로 새로이 마련된 과목들도 폐강돼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계자들

의 심사숙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어외국어의 이해, 한국고전문장의 이해, 국어정서법, 언어와 문화, 일어학개론, 생

취업대책 마련에 분주 장학실에선 입사원서배부

취업철을 맞아 졸업반학우들은 물론 학교당국에서도 장학실(담당관 문정탁)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10월13일 취업준비대회의를 여는등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본관개시관에 취업정보 현황판을 설치해 학우들에게 취업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는 취업지도위원들이 취업 확대를 위한 도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순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실에서는 또한 지난 9월 23일부터 93년도 신입사원모집 원서를 비치해 학우들에게 무료로 배부해주고 있다.

10월9일 현재 장학실에서 비치

활영어, 영산문장독, 한국고전문학작품감상, 중국고문선독, 동북아국가론, 생명의 이해, 수형Ⅱ, 결혼과 가정, 아동의 발달등은 교과목에서 삭제되고, △한국사회의 이해, 법학원론, 여성과 법률, 지방자치의 이해, 무역실무론, 여성학, 사회와 역사, 제주사회의 이해, 미래사회의 탐구, 한국사회와 세계체제, 애완동물의 이해, 동물식품의 생산, 해양개발과 보전, 물리학Ⅰ·Ⅱ, 생물학Ⅰ·Ⅱ, 정보와 사회, 유전공학, 현대사회와 소비자, 특별활동Ⅰ·Ⅱ, 육상경기Ⅰ·Ⅱ, 건강과 체육 등이 신설됐다. 【김종섭기자】

학풍개혁을 위하여 <6>

교수 연구업적 필요하다



흔히 우리가 대학을 1, 2, 3류를 구분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과도 상관이 있겠지만 교수들의 연구업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만이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니 만큼 교수의 연구업적은 곧 대학의 얼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의무가 강의 수강과 학문탐구에 있다면 교수의 의무로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와 함께 연구활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수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단행본 출판 △연구논문 발표 △의학회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학교 교수들의 '91년도 연구업적을 살펴보면 논문은 1인당 1.40편, 단행본은 0.07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91년 연보 참조) 및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서울대의 경우를 참고로 알아보면 84년부터 87년까지 교수1인당 연평균 연구논문 발표건수는 2.14편이고 단행본은 0.34편 편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학교의 연도별 교수 1인당 논문발표건수를 계산해보면 1988년 0.9편, 1989년 0.8편, 1990년 1.5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증가추세에서 주의해 볼 만한 일은 국제적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별로 많지 않고 상당수가 '제대논문집'을 비롯한 우리학교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논문집에 수록된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논문은 더욱 그러하다. (약 44%) 이는 “본교 논문집의 논문개수는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제출하는 논문편수가 적어 별다른 평가절차 없이 그냥 실고 있다”는 한 담당자의 말을 상기해 보면 그중 일부는 연구실적 자체를 올리기 위한 논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지금쯤 졸업한 강도동문은 “내가 쓴 레포트를 거의 그대로 교수가 다시 논문화해 발표한 일이 있었다”면서 “교수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연구활동을 벌여야 하는데도 제자의 논문을 이용해 연구실적을 올리는 그 교수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대체로 교수들은 “빠빠한 강의시간, 연구지원의 미비 등으로 연구에 전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자신들의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 물론 꾸준한 연구로 좋은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와달리 몇년이 지나도록 한편의 논문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많은 교수들에 의해 연구하지 않는 대학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지는 것이다.

지난 3월경 우리학교에서는 기획실을 기획연구실로 명칭 변경하면서 연구지원부서를 새로이 두어 교수 연구의 질적향상과 다각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지원담당관 박정섭씨는 과거 2, 3년 전보다 양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각 연구소에서 학교의 지원이 없다면 투덜대기 보다는 직접적인 세미나, 논문발표회를 통해 연구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이름뿐인 연구소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학교 연구소는 총 15개인데 '91년 논문제출수는 84편으로 한 연구소당 약 5편의 논문정도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역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연구소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원 외에는 거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에서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91년초부터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물론 처음엔 연구비 확보가 목표였으나 추후 대학전체의 발전기금으로 그 폭을 확대했다)이 지금은 현재 5억여 원으로 긴대에 못미치고 있다.

연구부위를 조정하고 학술연구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과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교수 인력 공채를 통한 연구실적 확보 △연구비의 지속적 확충 △기초 연구시설 확보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우리학교 장기발전계획 시간에는 △전임교수 주당 책임강의 9시간에서 6시간으로 하향 조정 △교수저서 출판지원 △국제회의 개최 △연구년 제도 도입 △교수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공인된 국제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 및 토론 참가자에 대한 여비 보조등의 강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연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하듯,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좋을수록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자질 향상도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김미진기자】

출돌하트방

언론은 사유물일 수 없어

MBC파업투쟁을 보며

인간이란 누구나가 물질적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는 으레히 정신적·문화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사회구조가 다변화되고 인간의 사회참여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간은 주변상황과 관련된 갖가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대부분 신문 내지는 전파매체를 택하게 된다. 즉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간과 인간의 고리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대중매체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공정 보도(公正報道)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2일 “MBC노동조합”은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방송을 권력의 홍보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과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경영진을 상대로 “보도·편집, 텔레비전 기술국장 추천제 등 공정방송조항 유지” “임금문제”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그후 MBC노조측은 노조파업 16일째로 접어들어 “공정방송조항 문제만큼은 현행안 유지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89년 노조와 경영진과의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보도국장 추천제 등이 회사측의 거부로 인해 3년간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사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보도누락 △대하드라마 ‘땅’이 경영진의 지시에 도중하차 △측소보도·편파보도 등 '89년 파업 이후의 방송들이 공정보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즉,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구가 원칙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공정방송조항” 현행유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선을 위한 홍보기구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공보처를 통해 “MBC 파업”을 축소보도 하거나 “물밑거래”를 하는가 하면 사태가 “방송장악기도”와 “공정방송 수호”의 대결로 부각되자 지난 10월2일 오후에는 전경 8개 중대 1천여명으로 문화방송사 주변을 에워싸고, 전경 5개 중대 6백여명을 방송사에 투입해 노조간부 12명을 연행, 구속했다. 이렇게 MBC노조 파업은 대선기간에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됐지만 59개 시민단체와 재야단체가 모여 “문화방송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하고 “공정방송”이라는 직업의 사명감과 공정방송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더욱 굳게 심어 주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집단의 이권이나 권력연장을 위해서 언론이 조작되고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또 그러기에는 우리의 대아가 그리 약하지는 않다.

공기에는 주인이 없다. 언론 역시 사회의 공기이기에 어느 특정집단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언론의 진정한 주인은 사회구성원 전체인 것이다. 【박】

품질로 세계정상

기술로 미래개척

대졸신입사원모집

여사원 공채 3기 동시모집

10년 후를 생각하는 지혜로 21세기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보람과 성장을 약속하는 생애직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신입사원	이공계	300명	- 정규 4년제 대학(원)모집분야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학위취득자 및 '93. 2월 학위취득예정자 '65. 1. 1 이후 출생자 (석사는 '63. 1. 1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무계		
전문비서직	여	사무계 전학과	

2. 전형방법

가. 1차: 필기시험 ① 이공계: 영어, 상식Ⅰ, 전공. ② 사무계 및 전문비서직: 영어, 상식Ⅰ, 상식Ⅱ
* 상식Ⅰ: 일반상식 상식Ⅱ: 상경, 법정보지 기초전공 관련지식
나. 2차: 면접, 신체검사, 인성검사

3. 1차시험(필기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시: '92. 11. 1(일) 오전 9시
나. 장소: 홍익대학교, 홍익여중고(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처	접수처
- 각 대학 학생처 또는 취업보도실 - 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중구 을지로 1가 금계기빌딩, 서울시청 좌측소계) - 포항제철 본사 1층 안내실 - 공동모집 각사 인사과	(790-785)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포항제철(주)인력관리부 인력과 Tel: (0562) 220-6466

6. 접수기간 및 방법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신입사원	'92. 10. 12(월) ~ 10. 22(목)	● 우편접수(가마감 도착분에 한함)
전문비서직	'92. 10. 19(월) ~ 10. 22(목)	● 본인 직접 접수(포항제철 서울사무소)

7. 기타사항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나. 근무지는 서울, 포항, 평양이 대상이 되며 적절한 경험과 능력이 인정되면 해외지사 및 해외취업인 등에도 배치될 수 있음.
다. 공동모집회사에 관한 사항은 안내 책자를 참고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製鐵エンジニア(株) 製鐵電氣コント(株) (주)제철화학 포스데미타(주) 거양개발(주)

社說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다

대학은 민족지성의 총본산이며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정치혼란과 경제침체 등 산적한 현실 문제들이 암울한 것일수록 이 나라 대학생들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간곡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근래에는 우리 대학의 도서관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생들 가득 찰 정도로 독서열기가 대단하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반가운 조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독서열기가 시험 기간 아닌 보통 때나 방학기간에까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학생들이 책을 읽는 진정한 동기가 의심스러워지기도 한다. 방학중에 실시되는 외국어 특강에 해마다 더욱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때 우리대학생들의 학업열의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 마음 든든하다. 다만, 특강기간 초반에 교실마다 가득하던 수강생들이 후반에 이르면 밀물 빠져서 줄어드는 것을 보면 든든하던 마음가짐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요즘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일면적인 유보가 따라나선다.

아까운 청춘을 바쳐가며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학생들의 우렁찬 고향소리를 들을 때 저토록 경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에게 맡겨지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당연히 번영과 영광이 약속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함부로 깨고 부수고 던지고 버리는가 하면 아무데나 마구 갖다붙이고 바르는 데에 이골이 나서 우리의 아름다운 캠퍼스 전역을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할 정도로 공공정신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의 황폐한 가슴에서부터 '민주정부 수립'의 숭고한 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정이 넘도록 학생회 사무실과 세물들음에 전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것은 밤을 도와 대학발전의 지도의념을 탐구하는 선배받은 학생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져 나온 학생운동의 성명서와 구호들이 역사적 타당성과 객관적 현실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고 다수 여론의 호소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는 못해 의심스럽고, 그들의 두뇌에서 이루어진 대학축제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대학생다운 학구성과 생산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국내 의적으로 온갖 구차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한국 기능공들의 솜씨가 세계적 일이라는 사실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이 공부할 열심히 하여 학문과 기술의 수준을 높여야만 경제가 발전되고, 경제발전이 되어야만 대학생들이 분개하는 강대국과의 굴욕의교를 면할 수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주장하는 노동자 임금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길은 경제가 발전되어 국민총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는 바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빈약한 교육투자를 개선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황금기인 대학시절에 알찬 수학을 거두어 개인적인 보람과 국가적인 번영을 다할 수 있는 길,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다.

濟大漫評



無 論 有 說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어”

지금 세상에 인기를 얻고 있는 책 중에 “W이론을 만들자”라는 책이 있다. 미국의 X, Y이론이나 일본의 Z이론과 대용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경영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바람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론의 실체는 바로 한국인의 신바람에서 경영이론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조직은 외견상 일본이나 서구의 그것과 유사하나 경영철학면에서는 일본이나 또는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업 조직면에서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

한 사실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조직의 구성원들도 한국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것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경영철학면에서도 우리의 문화에 맞는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이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되는 모양이다. 한국인은 국민의 10분의 1이 (91년 약600만 명)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민족이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국민도 더이상 아니다. 평균 한국인은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단계도 지난지 오래다. 신바람에



바탕을 둔 경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신바람은 “어떻게”라고 국어사전에 풀이되어 있고, 이는 분명 흥에 겨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쭉들쭉해지는 기분일 것이다. 돈, 돈, 돈하면

마누라가 갑자기 돈벼락 맞아 죽었을 때, 예전에 없던 상사의 죽음으로 예전에 없던 승진을 하였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면서도 어깨가 들쭉거리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내리 엷은 딸을 낳고 마누라 나이40이 넘어 스트라이크 하나 때렸을 때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로 신바람나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신바람”, 이것만 있으면 힘든 일도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에 맞는 이 이론은 요즘같이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목을 끌만한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적으로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신바람나게 일하자고 사람들을 부추겨 봐야 동기가 없는 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현상들, 모든 social system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독립된 system이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어떤 system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등의 system들이 신바람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만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신바람이 경영철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행동이론이며, 지속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신바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system들이 정의방향으로 움직일 때 positive

한 동기의 부여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몇년전 신바람에 어쩔바람으로 전국을 뛰어들어온 투기꾼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러나 소수인의 신바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라는 가정에서 경제학의 이론이 가능하고, 이는 공정한 rule안에서의 fair play를 가정하고 있다. 현재의 모든 사회 game들과 관련 처음부터 fair play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의문점이 많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경제학에서 우리가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면 즉 fair play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rule에서의 경제행위(game)는 승자가 분명 패자보다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런 사회에서는 여기보다 일의 중요성을, 투기의 대가보다는 노동의 대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 한글날 546돌에 — 알·림·니·다

조사·어미·접미사 바로 써야

이 성 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일주일에 한두 번 대학에 올라오는 나는 (알리는 글)에 자주 눈길을 준다. 작가는 모임을 알리는 글에서부터 크레는 전지(全紙) 몇 장에 걸쳐 써 놓은 긴 글에까지, 그 글을 통해 나는 학교(크레는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 해서 나는 (알리는 글)을 써붙인 이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지 말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표기법·맞춤법이 제멋대로인 경우, 논리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논리에 맞지 않는 글을 기다랗게 써 놓은 경우...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슬프게 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을 찾습니다’란 알림글이다. 어느 동아리에서 햇병아리회원을 모집하는 글이었다.

‘찾습니다’와 ‘찾습니다’.
‘찾다’란 기본형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안타까웠다. 부끄러웠다. 영어단어 틀린 것인데 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무식하고 비꼬면서도 왜 우리말 잘못 쓰거나 잘못 발음한 것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얼버무리는 걸까? 왜 우리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것

들만 추려 원고지에 적는다면 수백 장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눈에 띄는 것만을 추려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다.

①내대로 그 일을 처리해라. (조사)
②너 할 대로 해라. (의존명사)
③너만큼은 나도 한다. (조사)
④먹을 만큼 실컷 먹어라. (의존명사)
⑤너같이 멍청한 사람은 처음이다. (조사)
⑥예고한 바와 같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사)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것인가. 먼저 조사와 의존명사의 경우는, 앞에 나온 단어나 문장 성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①②③의 경우는 앞에 체언이 있다. 따라서 뒤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④의 경우는 모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L, -R)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된 상태이므로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와야 한다. 관형어는 자립성이 없어서 뒤에 반드시 체언을 취하므로, 한편, ⑤의 경우도 앞에 ‘바와’만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올 수 없다.

복합조사의 경우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앞의 것들보다 더 많다.

⑥여기서부터는 금언지역입니다.
⑦우리 학교까지가 제주시다.

‘-서부터’와 ‘-까지’는 복합조사이다. 일반 단어와 마찬가지로 복합조사의 경우도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조사가 둘 이상 겹칠 때는 거의가 복합조사이므로 붙여 쓰면 된다.

두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어미를 잘못 쓰는 경우이다. 우리말에서 어미는 용언 아래 붙어서 용언을 활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어미와 의존명사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나, 어미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⑧알 듯 말 듯하다. (의존명사)
⑨눈물이 비오듯(이) 흐른다. (어미)

⑨의 경우는 ‘듯’ 앞에 관형어

가 왔으므로 의존명사다. 그러나 ⑩는 용언의 어간 뒤에 왔으므로 어미다. 우리말에서 용언의 어간이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관형어뿐이기 때문이다.

⑪먹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해라. 사과는 배든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어라.
⑫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⑬의 ‘-든’은 조사와 어미로 쓰인다. 그 뜻은 ‘가리지 않는다’다. 그러나 ⑭의 ‘-던’은 어미로 ‘회상, 동작의 미완결’을 뜻한다. 따라서 이 둘은 그 뜻에 따라 붙여 써야 한다.

⑮접이 가난해매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⑯접이 가난함에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될+에’가 되어 ‘됨’에가 맞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말에는 원인·이유·인정(認定)을 나타내는 ‘-에’라는 어미가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⑮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으로’와 ‘-므로’를 잘못 쓰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으로’는 조사로 체언 아래 붙고, ‘-므로’는 어미로 용언 아래 붙는다고 생각하면 구별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조사 ‘-(이)다’와 접미사 ‘-하다’를 잘못 이해하여 생기는 오류다.

⑰(이)다는 서술격조사로 체언 아래 붙어 그 체언이 서술어

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그런데도 어미 ‘-다’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다’의 경우도 접미사로 쓰이는 것을 모르고 동사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하다’는 여러 품사 아래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다.

⑱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⑲우리들은 모두 제주대 학생입니다.

언뜻 보면 ⑱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뿐’은 서술성 의존명사로 뒤에 서술격조사를 취한다. 따라서 서술격조사 어간 ‘-이’와 어미 ‘-니다’는 앞의 체언과 붙여 써야 한다. ⑲에서 체언과 ‘-이+는’을 붙여 쓴 것처럼, 따라서 체언 뒤

에 ‘-이’가 나오면 붙여 써야 맞다.

⑳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㉑웃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려.

㉒의 ‘참여 합시다’는 붙여 써야 맞고 ㉑의 ‘번쩍번쩍 합니다’도 붙여 써야 맞다. ㉒은 ‘참여’란 명사에 ‘-하다’+‘-니’다가 결합된 것이고 ㉓는 ‘번쩍’번쩍이란 부사에 ‘-하다’+‘-니’다가 결합된 것이기에, 따라서 ‘-하다’는 붙여 써야 한다. 동사 ‘하다’와 어미 ‘-하다’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앞에 용언에 부사형어미를 붙인 부사어가 오는가, 일반 품사가 오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제12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1.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일반논문(7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2. 시 상 : ○주제논문 당선작 1편-30만원
가 작 1편-15만원
○일반논문 당선작 1편-30만원
가 작 1편-15만원
3. 응모마감 : 10월 20일
4. 제 출 처 : 본사편집국,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작품’임을 명기할 것)
5. 당선작발표 : 추후 공고

제대신문사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대졸신입사원모집

밖에서 벌어들인 안을 살피우는 경영전략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온 現代 —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現代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도전해 보십시오.

1. 모집부문 인원 및 자격

총 2,500명

구분	모집부	인원	응시자격
이공계	기계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건축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산업공학·전산학·수학·물리학	1,650명	●정규 4년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93년 2월 학사(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기취득자 ●1964년 1월 1일(석사: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미필자도 지원가능)
	인문사회계	85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방법

- 가. 1차: 필기시험
●이공계: 영어·전공
●인문·사회계: 영어·전공(경영학·경제학·무역학·법학·행정학·영문학 중 택일)
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1992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나. 장 소: ●서울지역 접수자: 1) 이공계: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전동)
2) 인문·사회계: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울산지역 접수자: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무거동)

4.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양식별 소정양식) 2통
나. 대학전학 성적증명서(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1992년 10월 5일(월)~10월 15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지원서 교부처

지 역	교 부 처	전 화
서울 (110-793)	서울특별시 중구로 140-2 현대빌딩(비원열)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2) 746-3231~4
울 산 (682-792)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현대 대 중 공 업(주) 인력관리부	0522) 30-2301~4
부 산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4가 80-1 현대자동차제비스(주) 부산본부영업소	051) 466-4400~14
대 구	대구직할시 서구 원대동 2가 69-2 현대자동차제비스(주) 북대구영업소	053) 353-4200~11
광 주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2가 415-12 현대자동차제비스(주) 광주영업소	062) 364-2111~5
대 전	대전직할시 동구 신당 2동 503-2 현대자동차제비스(주) 대전영업소	042) 624-6301~7
전 주	전북 전주시 경원동 3가 73-1 현대자동차제비스(주) 전주영업소	0652) 86-5111~6
청 주	충북 청주시 영동 87-3 현대자동차제비스(주) 청주영업소	0431) 52-3911~4
춘 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685 현대자동차제비스(주) 춘천영업소	0361) 52-4706~8
강 릉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59 현대자동차제비스(주) 강릉영업소	0391) 43-3390~3

다. 지원서 접수처: ●서울-현대인력관리위원회(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울산-현대중공업 인력관리부

6. 기 타

-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나. 우편접수자는 수험표 발송용 봉투(우표부착, 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할 것.
다.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92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라.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마. 진전한 서류 활동과 다양한 스포츠·취미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우대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2년 10월

現代 人力管理委員會

총학생회장 선거 11월12일로 확정

선관위 구성돼... 오는 24일 입후보등록 마감

각 단대장선거 27~28일 실시

93학년도 각 학생자치기구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8조에 의거 지난 9월25일 열린 하반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제성 4)에서는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후보등록서배부와 등록마감일을 끝내고 10월12일부터 27일까지 선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는 11월18일까지 모든 선거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표)

특히 관심을 끌고있는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후보등록서를 배부, 10월24일 오후 1시까지 마지막, 11월4일과 11일 입후보자들의 유세전을 가진후 11월12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각 단대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한임경(국문3) 현보현(중문1) ▲법정대=김길현(행정2) ▲경상대=김창범(관광경영3) 장윤호(경영2) ▲사범대=오정대(과교3) 김미자(과교3) ▲농과대=송태권(축산3) 이형준(원예2) ▲공과대=강성찬(전자공3) 박해영(산디2) ▲자연과학대=홍은숙(수학2) 김리선(석영3) ▲해양과학대=김정동(중석3) 이승국(해양환경3) ▲야간

16~17일 자치기구 감사

총대의원회(의장 김제성 4)에서는 92년 하반기대의원총회를 지난 9월25일 사법대제미나실에서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준하는 한편 92년 각 자치기구감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회계·사업·업무·공약 등 3개 부문에 대한 각 자치기구감사를 오는

〈표〉자치기구 선거일정

기 구 명	등록서배부	입후보마감	유 세 일	투 표 일
총 학 생 회	10월 19일~21일	10월 24일 13시	11월 4, 11일	11월 12일
총 대 의 원 회	10월 23일~25일	10월 27일 17시	11월 18일	11월 18일
총 여 학 생 회	10월 14일~19일	10월 19일 17시	10월 22일	10월 23일
동아리연합회	10월 12일~14일	10월 16일	10월 29일	10월 29일
각 단 과 대 학	10월 12일~15일	10월 15일 17시	10월 26일~27일	10월 27일~28일

“민주정부수립 위해 총진군” 결의 제총협 대선승리다짐 투쟁선포식 개최



◇지난 9월29일 열린 제총협 2학기 구국투쟁 선포식에서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최루탄을 쏘는 전경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민주정부 수립의 힘찬 발걸음, 대선투쟁 승리다짐을 위한 제총협 2학기 구국투쟁 선포식”이 지난 9월29일 제총협(상임의장 윤철수 무역4)주최로 한라전 문대에서 있었는데 도내 4개 대학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 92년에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들을 결의했다. 이날 구국투쟁 선포식에서 제총협은 대선투쟁 승리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구국투쟁 결의문을 통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전진군의 선두에 나서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우리들의 임무”라면서 “민자당-김영삼 일당의 독재정권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세력의 승리를 이룩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제총협은 민자당-김영삼 일당의 부정선거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

자제 연대 실시와 거국중립 내각 구성 △판계기대 대의회의를 주도하며 부정선거를 선봉에서 저지했던 이상연 당시 안기부장과 내부장관의 구속·처벌 △김영삼 대통령후보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선포식이 끝난 후 2백여명의 학생들은 3시간여 동안 한라전 문대 전입로에서 최루탄을 쏘는 전경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 6시경 경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제주연합출범

지난 9일 창립식 가져

“민중생존권수호”등 결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 결성대회(상임준비위원장 한석)

가 지난 10월9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려, 제주지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상설공동투쟁체로서 민중생존권 수호와 민주개혁실현을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번 창립대회에는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등 가맹단체 대의원과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주어민회 등 참관단체회원, 관제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중생존권 수호와 사회진영의 민주개혁을 실현한다. △반독재 민주억압을 추진결시 커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룩한다.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단결을 실현한다 등 5개항의 강령을 채택했다.

또한, 제주연합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역사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4·3영혼들의 투혼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실현을 위해 제주지역 통일단결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 제주연합을 결성하는 것”이라면서 “55년 제주민중의 단결이 전국의 4천만 민중의 힘으로 모아져 분단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생존이 보장되고 민중이 주인되고 하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제주도민의 총단결과 민주정부 수립의 승리를 안을 수 있다

10월중 학사일정

△12~17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교육대학원)
△14~17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대학원) △26~30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대학원) △29일 제2학기 수업주수 2/3선 △10월 하순 주제 아래제전

10월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기타안건으로 제기된 학생회 비인상안은 총대의원회의장에 위임, 향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자세한 사항을 결정코로 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대의원들이 힘을줄 것을 당부했다.

록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 결성대회는 대회선언, 제주도의회 이영길 추사, 경과보고, 안전상징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의장단 선출에서는 양영수, 임윤철, 남승택선부와 김상근목사, 김재호전교주제지부장, 윤철수제총협상임의장, 한석, 고상호씨등 8명을 공동의장으로 양영운씨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본고사 실시여부 입시연구위서 논의 지난 21일 위원회 발족... 내년 2월까지 활동

95학년도 이후 본대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시 본고사(대학별고사)의 시행 여부를 연구하기 위한 ‘입시연구위원회(위원장 허철수 교학과 교수)’가 지난 9월21일 정식 발족했다.

연구기간이 92년 9월21일부터 93년 2월까지인 이 입시연구위원회(위원장 허철수)는 “본고사 시행여부 △본고사 반영비를 △고사과목수 및 고사과목 출제, 채점방법 등으로, 특히 본고사 실시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6 개주 주도록 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 1인씩으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는 △인문대학=정대연(사회학과) 부교수 △법정대학=고충식(행정학과) 교수 △경상대학=김태보(경제학과) 교수 △사범대학=김형원(사회교육과) 교수 △농과대학=강영길(농학과) 부교수 △해양과학대=양성기(해양학과) 부교수 △자연과학대=김문홍(생물학과) 부교수 △공과대학=좌종근

아라체전 14~15일 열려 씨름·족구경기 등 마련돼

개교 40주년 기념 ‘힘찬 팔복’ 거센 함성 민주정부로 달려가는 92년 아라체전’이 총학생회(회장 윤철수 무역4) 주최로 10월 14, 15일 양일간 대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이번 체전은 ▲14일 △10시30분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12시:개막식 행사(축하 길놀이, 파라스트 낙하사범) △13시30분:에선 본경기가 진행되고 ▲15일에는 △10시부터 준결승, 결승 경

기가 열리며 △17시 폐막식(상 황국 공연, 노래·춤공연, 집단대동놀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난다. 경기종목은 축구(남), 족구(여), 배구(남·여), 씨름, 줄다리기 등이며 그의 행사로는 △장기대회(14-15일 민주광장) △아라 씨름왕 선발대회(15일 소운동장) △에비역축구대회(14-15일 민주광장) 등이 있다.

독일 ‘본’대학과의 학술협정 구체화 교환학생프로그램·방학여학연수 등 실시

우리학교와 독일의 본대학교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학술교류협정이 내년 상반기중 교환학생프로그램·방학여학연수 등 실시한다. 양대학교의 학술교류를 촉진시키고 학문적 공동관심에서 비롯하는 여러 학문분야의 공동연구활동을 확대하고자 체결되는 이 협정은 우선 우리학교의 독어독문학과와 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상호 공동연구활동분야부터 교류하게 된다. 이 협정이 이뤄지게 되면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 △공동연구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및 개발된 교재의 교환 △대조 비교분석 ‘요류분석’ ‘음성학과 발음학’등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독어독문학과(학과장 송성희 부교수)에서는 본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의 기본 세부안으로 본대학교의 독문과,

어학연구소, 본소재 전문어학기관 GFBA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독어독문학과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에도 본대학교의 교수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학교에 직접와서 강의를 하는 ‘독일이 특별 방학여학 프로그래’를 이번 겨울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와 본대학교, 본 소재 전문어학기관 GFBA가 주체가 되어 개설한 ‘방학여학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이번 겨울방학에는 제주도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이 화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급 독일어회화’ ‘중급 독일어회화’등을 1월중순부터 2월중순까지 4주간, 하루 여섯시간씩 실시하게 된다.



교수동정

▲교정환(영어영문학)권인혁(사학과)교재전(경영학과)김항원(사회교육과)류기중(농학과)김문철(축산학과)이기환(중식학과)한성빈(화학)이완정(교육대학원)부교수=92년 10월 8일자로 교수에 임함. ▲김진영(사회학과)김부찬(법학과)윤석선(국어교육과)교봉수(수학교육과)현남규(물리학과)이현주(에너지공학과)조경호(에너지공학과)김두경(전자계산소)조교수=92년 10월8일자로 부교수에 임함.

▲변종규(중식학과)교수, 정상철(가)교수, 이기환(가)부교수, 노성(가)부교수=오는 17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수산학회에 참석 예정. ▲허정구(해양환경공학과)조교수, 강상규(가)조교수=10월9일부터 11일까지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발표회 및 취업정보를 위한 한국환경과학회에 참석.

▲Dennis R.Ferman(영어영문학)객원교수=지난 10월9일 Patricia E.Hunt의 후임으로 객원교수에 임명.

발간소식

『사회발전연구』 8집

제주도 관계 특집 다뤄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30일 『사회발전연구』 제8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관계 특집 △제주도내의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적 연구-윤양수(법학과 부교수), 고호성(법학과 조교수), 김성준(행정학과 전임강사) △제주 중산간지역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연구-강정선(농림경제학과 교수)강동일(가 전임강사) 제주도의 아동복지 방향과 대책-김양순(가정관리학과 교수)

지조위 『돌하르방』 15호

농촌문제 주로 다뤄

지역조사위원회(위원장 박진우 경영4)에서는 지난 9월24일 『돌하르방』 1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농촌관련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판하는 날의 이야기 ▲공판의 사회적 책임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발한다 ▲지역조사위원회 상반기평가 92년 제총협 농촌활동에 따른 평가 ▲가을 농활을 제안하면서 ▲탐방-제주도 농민회 하계 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총학 『해방돌풍』 발간

대선반침등 실려

총학생회(회장 윤철수 무역4)가 관지 『해방돌풍』이 지난 9월 18일 발간됐다.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간된 이관지에는 ▲총학생위원회의 결과 ▲김남중간접낙인책 등 △제주대 조직사건의 조직가능력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한 민주정부수립 등의 글이 실려있다.

『희망키우기』 퍼내

초승 창립 10주년 기념

초승 문학동인(회장 변종태 동문)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집 『희망키우기』를 지난 9월22일 펴냈다.

이책에는 변종태 동문의 「휴먼데크에 대한 반역」을 통해 인간관계 사의 희망키우기, 3편, 김선화 동문의 「종이비행기」, 2편, 김창호 동문의 「함박만 바깥쪽」, 16편, 오정훈 동문의 「다시 근시안으로 보는 세상-1-」, 6편, 강남훈 동문의 「풀의 형상」, 11편, 강수일 학우(4)의 「클로바스의 민들레」, 2편, 고은진의 「빨래」, 4편, 문해영 학우(4)의 「코스모스」, 5편, 김동현 학우(2)의 「병문천」, 10편, 부유섭 학우(2)의 「당신은 거지집에」, 4편, 김은형 학우(1)의 「무중」, 2편, 허인자 학우(1)의 「여름에」, 2편 등 모두 12명의 작품 62편이 실려있다.

행정대학원장협의회

10·11일 본고사 열려

전국행정대학원장협의회 총회가 우리학교 행정대학원 주관으로 지난 10월8일부터 9일까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학교 한창영교수등 20명이 참가한 이 총회에서는 양영철(행정학과)조교수가 ‘제주지역 개발과 행정의 체계’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4백m 허들서 은메달 따내

임관철 학우

임관철(체육학과 3)학우가 지난 9월24일 서울 잠실보조경기장에서 폐막된 ‘제47회 전국 대학육상 경기선수권 대회’ 4백m 허들경기에서 54초13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관철 학우는 작년 71회 전국체전 남자일반 4백m 허들경기에서 남자일반 1천6백m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기바하면, 72회 전국체전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다.

청년의 힘과 지혜로 학원의 주인으로 우뚝섬시다.

본교 후생복지 시설인 복사실이 최근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등으로 인하여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업자로부터 복사료 인상요청이 제기되 청년아라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1. 복사요금 규격별 원가 (조사내용)

조사기구\복사요금규격	A4	B4	B5
후 생 과	18.92	21.32	18.12
복 사 실 측	19.576	21.975	17

2. 총학생회의 의견

학교당국과 복사실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B4인 경우 현행 복사료(20원)로 복사실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B4인 경우에만 복사수수료를 인상한다.

* 참고-월별 복사요금 이용 실태

	B4	105,000	100,000	65,000	105,000	55,000
A4	90,000	72,500	45,000	82,500	47,500	
B5	20,000	12,500	17,500	12,500	16,500	
	3월	4월	5월	6월	7월	

3.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1차의견 수렴 내용: 위의 2항에 따른 이의 제기, 및 복사실 이용시 개선사항을 24일까지 수렴합니다.

해방돌풍 총학생회

10월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개선내용

- 생계유지곤란사유 면제원칙 철폐서류 간소화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면제원칙이 있어 고등학교 중 이하의 저학력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사상환서 작성 병역제도를 폐지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병역자가 등록하여 처리되는 지방병무청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비율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면제 처리토록 간소화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민원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면제원칙 철폐서류 개선
본격적 거주자가 다른 생계유지 곤란사유 면제원칙과 겹쳐서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구·시·읍·면 민원창구에서 지정서식이 면제원칙에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재산 및 소득진술서와 미파세 또는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본적지 및 전거지 거주가사상환서 등을 본인인 본적지까지 직접 가지 않고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로 최초 접수한 구·시·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먼거리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 병무민원 출원관서 확대
대학 재학도중 출원하는 “재학생 입영원”과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취소하려 할때 출원하는 “입영취소원”은 본적지나 거주지의 구·시·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청 어디에서나 접수하지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학생이 원거리에 본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징병검사 받은 후 질병이 새로 발생, 악화되어 재 신체검사를 희망할 경우 출원하는 특수전면면역원과 고아, 수형자 등이 보충역 또는 면제원을 출원할 경우도 거주지 또는 본적지 구·시·읍·면이나 지방병무청중 아무데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각각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 또한 현행병 입영 대상자가 대학입시 등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고자 할때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 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개설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역관련 기준과 이행절차, 입영일자, 확인등 병역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 (02)754-3911를 개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의 특징을 대표전화(754-3911)보다 나 만으로 동시 48명이 동시 통화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코드를 불러도 전화문제가 가능.
- 유의사항은 전자식 전화안내 사용해야 이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간은 3분으로 제한 하였으므로 3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진다.

제주지방병무청

개인용 컴퓨터 어학학습기 - Dr. WICOM

첨단 컴퓨터 기술과 카세트레코더가 결합한 세계 최초의 외국어학습기-럭키금성 Dr. WICOM 기존 어학학습기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Dr. WICOM의 놀라운 기능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문장선택기능

다시 듣고 싶은 구간을 컴퓨터가 자동선택하여 1,000번이라도 다시 들려줍니다. 3개 문장을 8번 반복·듣기 지시한 대로 자동반복, 테이프 내용이 직접로 읽힙니다. 한 문장 진행 후 자동정지하여 응답을 해야만 계속 진행,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구간 뒤에 학습자의 발음을 녹음하여 혼자서도 발음을 비교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능력에 따라 ‘보통’ ‘보통’ ‘느리게’ 등 3단계 세정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느 교재라도 원터치 편집을 하여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송이나 방송 등을 녹음하여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원터치기능’을 이용하여 ‘방금 지나간 문장’이나 ‘앞으로 나올 문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AFKN, NHK 최단시일내 정복
- TOEIC, TOEFL 시험 성적 급상승
- 해외취업, 유학준비자 ‘Hearing’ 및 회화 완전해결
- 해외취업, 직장인 영어회화 단기정복
- 중·고교 대학생 외국어학습 완전해결
- 해외여행자 기본회화 단기 습득

럭키금성

제주도 총대리점
TEL : (064)47-2850/1
FAX : (064)47-2851

제2차 동경일본어학연수생 모집

본유학원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경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본의 선진문화와 살아있는 일본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기관: 동경 와세다 일본어학원 (구. 오리엔트일본어 학교)
- 기 간: 1992년 12월7일부터 2개월간
- 대 상: 제주도내 대학생(남, 군필자)
- 모집인원: 선착순 15명 (기숙사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접수마감: '92. 10. 30.
- 연수비용: 1인당 97만원 (수업료, 교재비 왕복 항공료등 기타 잡비 일체)
- 단 기숙사 이용시 월 30,000¥ 추가 부담

* 1991년 12월 1차 동경어학연수시 전원 (16명) 아르바이트 했음.

* 1992년 10월학기생 취학 VISA 90% 취득
1993년 4월학기생 모집중(11월20일서류마감)
동경어학 연수를 통해 보람있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전화 ☎ 57-3665

주관 **국제 유학원**
협찬) 제주외국어학원 (주)일진관광여행사

휴가를 위한 축제 대선 안돼 각각 분산된 축제 결집 방안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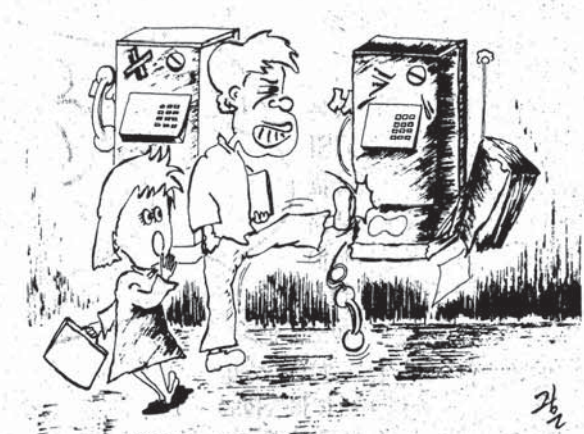
80년대에는 구조의 무거움에 덧붙여 개인의 가치가 숨을 쉬지 못했다면, 90년대는 87년 대언 이후 변혁의 깊은 갈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면서 한없이 가벼운 개인의 내면세계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다. 우리학교의 축제도 그러한 경향을 좇아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전후에서 각자 나름대로 즐기는 휴가를 위한 구실로 바뀌어지고 있다. 91년의 조류에 따른 이런 축제

의미의 변화는 80년대초 광주대학살 이후 축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축제는 원래 한 집단의 삶의 방식이자 과정이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모두가 모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음주와 가무로 그간의 노동의 피로움을 풀었던 '영고'와 '동맹'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축제는 일년동안 그 집단이 이룩한 성과를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겨난 집단 구성원들의 분란과 갈등을 풀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계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축제에는 학술세미나와 술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의 자리바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의 축제는 집단의 통일과 개인의 풀이집이 변종잡탕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집단과 개인의 양극에서 자리를 잡아왔다. 80년대 이전의

축제는 구술과 역동에서의 일시적 해방으로 축제를 보았기 때문에 막걸리와 통기타, 양장파티라는 현실도피적인 디오니소스의 장이었다. 그러나 80년 군부에 의한 광주 민중 학살이 마르시즘의 설득력을 정점에 올려놓으면서 대학축제도 과학적 운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축제는 개인의 배설작용을 배제하고 새벽출정, 민중가요 경연 대회 등의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개인의 풀이집속에 집단의 통일성을 풀이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생식력에서 아폴로적인 이상을 쫓아 풀이 기회를 역사의 흐름에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에 끝난 단체 축제들을 보면 결코 그러한 것 같지 않다. 시작만 무성하고 끝은 없는 축제,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모살격는' 공중전화



환절기마다 학생들이 몸살을 겪는 것보다 더 심하게 몸살을 앓는 것은 교내 공중전화입니다. 학생들이 부주의하게 전화를 다룸으로써 교내 곳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며칠을 못가고 꼭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통화로 전화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의 그릇된 사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두번째 약속을 못지킨 스승님 딸의 주례도 약속해 놓고선

이런 일화를 읽은 생각이 난다. 옥스포드대학 출신의 노(老)교수가 모교를 방문했다. 학교는 옛 모습 그대로였다. 기숙사도 둘러보았다. 역시 옛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쓰던 장롱을 열 어보았다. 웬걸! 그 속에는 예쁜 숙녀가 숨어 있지 않은가? "저 여자는 저의 사촌동생입니다." 뜻밖의 결례를 한 노교수는 "거짓말도 옛날과 똑 같구먼...?"

금년 설날이었다. 날벼락 해적을 당한 고종원교수(전, 농학부교수, 필자의 은사님)님을 찾아갔다. 그분은 대쪽같은 성품에 청산유수같은 명망의를 하셨다. 나는 중학생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세배를 했다. 은사님은 제자의 딸에게 꽃갑과 세배돈을 주면서 말했다. "장 예쁘게도 생겼구나, 너의 아빠가 대학생 때였지, 강의실에 불꽃 찾아와선 주례를 서달라는 거야. 아쩡 너는 그때 데리고 온 아가씨를 속 빼 봤군."

스승님의 농담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분은 그 후 3년동안 고혈압과 중풍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셨다. 내 딸의 결혼 주례도, 약속해 놓고선 은사님의 명복을 빈다.

양 상 민
KBS근무·74년 본교 농학과 졸업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들의 참여공간입니다. 항상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정치 방관만 할 건가 민중이 주체되어 개혁 나서야

이 사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하지 않고 관권선거의 유폐해서, 예상되는 삶의 파고를 두 아 터짐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

기군수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은폐와 왜곡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판결내용을 보면, "선거는 격전지역인 고군 내에서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며 한재와 임재길 연기 지구당 위원장이 공모한 불법선거운동에 이종국 후보자가 뛰어들어 격려금으로 1천만원을 주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방조한 사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나머지 의혹부분은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재가 제시한 증거는 확인이 안되므로 증거책임이 불분명하고 밝혀 낸 바에 의하면 한재가 과잉충성을 위해 저지른 것이다"라고 되었다. 이것은 부정선거폭로 당시 김영삼이 "선거의 책임자로서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 낳은 결과이다"라고 사건전말을 호소하는 발언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x 한 높이 성변하고 전후좌우를 바꾸면서 어느 한개인에게도 책임자가 시키는 오리발 내밀기식

인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 정부여당의 영부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여당총재의 말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제시된 증거에 대한 분석대신 "한재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 "자금액수가 틀리다"하면서 여론을 이끌었고 호도하기에 바빴다. 한 개인이 과잉충성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 충성을 알아서 하게 하는 높은신 양반들에게 근본적인 추적방향을 돌려야 하는게 아닌가? 아무튼 한 개인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한준수씨 수사는 지난 수서비리사건과 정보사태대립사건과 관련하여 생각 해 볼때 정부여당과 고위층과의 연루를 피해 한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종결짓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모든 사건에서 오리발 내밀기, 떠밀기기 등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유야무야 해왔던 것의 일관이다. 총선의 부정선거

을 씩씩하게 하는구려. 선거에 나올 각 후보들은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학생회선거를 공명선거 원년으로 삼아 어떨지. ○...아빠! 할 일 그렇게 없어?" 요즘들이 학교내에 축구장, 축구장 뿐만 아니라, 야구장까지 생겨 학우들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뭘 소리고 하니, 중간고사가 끝나 할 일이 없어진(?) 학우들이 본관과 4동사이의 잔디밭과 도로등을 점유하여 신나게 축구

전당인가 전당포인가

·축구·야구등을 하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라는 것. 아라자, 때와 장소 못가리는 일부 학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아빠! 할 일 이 그렇게 없어?" ○...술마실 자적도 없으면서 최근 7천이라학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그 내용인즉 월요일 오후 1시경 학생들 사이에서 '블랙하우스'로 통하는 4동 옆 공

사관식당에서 한 학우가 술에 취해 기를 파손하고, 식당할머니의 신발을 밟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리를 뿜다 고. 원래 교내에서 주류판매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관 식당 축에서 1학기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자 한동안 학우들에게 주류 판매를 중단 하더니만 그것도 그때 뿐, 지금까지 계속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학교에서 술에 취해 주태부리는 그들에게 말하건대, "술은 아무나 마시는 줄 아시오?" ○...지성의 전당인가 전당포인가? 시험기간중에 도서관에서 지갑을 털리는 일이 빈번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신경을 곤두 세웠는데. 잠시 자리를 뜨거나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불일 보고 나오는 사이에 감쪽같이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학문의 열기로 가장 순수성을 가져야 하는 도서관에서 이런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니,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그 대학의 지성은 이제 전당포에 맡겨 버린 게 아니냐고 떠나없이 우려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는 다른 학교처럼 규율대를 조직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공정방송 쟁취 위해 힘 모아야 MBC파업 연대투쟁 전개하자

한달이 넘도록 파업농성을 하고 있는 문화방송에 대해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에서는 자세한 내막이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언급한다 하더라도 단 몇줄에 그쳐 버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대중들과 밀착관계를 갖고 있는 TV에서는 연일 공정방송실현을 요구하는 이들의 몸짓을 불분명파업이라는 한마디로 매도하고 있다. 3당대표들의 "MBC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합의가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권력이 문화방송에 투입되고 노조원들은 개 끌려가듯 끌려가고

뉴스 대신 노태우 대통령의 동정을 알리는 기사로 채워져야 했다. 주간 스포츠 중계 계획에도 없던 한일 청소년 핸드볼 경기가 갑자기 편성되더니 김영삼씨의 총재수락 연설이 새끼기 보도되는등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분주하다. 대통령의 중요하지 않은 동정기사를 빼고 뉴스를 진행한 기자가 보도국장에 끌려가 목을 듣는가 하면 전국교사추진위기사를 뉴스 코트머리에 넣은 기자도 호통을 당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방송의 편파보도를 경정연의 과잉충성이 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젠

개신간

『혼자는 설 수 없다』
- 한국공간수필동인

한국공간수필동인(회장 김창중)에서는 동인수필집 『혼자는 설 수 없다』를 한강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 책에는 작년에 등단한 양순필(교원대학원장 국교)교수의 「늦가을이면 생각나는 사람」 「사랑의 물약」 「사철나무」 「애서랑 이야기」 등 동인 18인의 각양각색의 글 72편이 실려 있다. (한강출판사 펴냄/4천5백원)

대학생 산문공모 당선작

『2012년의 日記』

최우수작

21세기 테크노파시대의 대학변화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듣기위해 금성이 마련한 '대학생 산문공모'의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21세기를 맞는 화창한 바람을 보내주신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과 금성의 기술의지로 함께 그려낸 밝은 미래의 청사진— 금성의 첨단 전기·전자 테크놀로지로 실현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화) 입상시절. 문제가 차례로 모니터에— 대학교 정문앞에는 벌써 수험생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사이로 바빠달려 내 수험번호가 쓰여진 커다란 문양이 있었다. 손이 조금씩 떨려나.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 수험번호카드와 지문을 인식검출기에다 접수시켰다. "어서 오십시오! 강장성씨. 부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강장성씨의 좌석번호는 ad-1132입니다." 조용하게 내 좌석번호가 쓰여진 좌석에 앉았다. 문제는행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시험 문제들이 모니터위에 떴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2012년 3월 23일(금) 도서관에서, 교수님께 양보한 내 차례— 오늘은 다음 주까지 작성해야하는 철학개론 페이퍼 자료를 구하려고 대학교도서관에 가보아야했다. 우선 열람실의 메인 컴퓨터에 어떤 자료 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벌써 언어 철학부분의 현재시간 대출이용도가 43%가 넘게 나왔다. 다행히도 내가 당장 필요한 책을

한권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책을 찾아가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학생이 대출해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약을 해놓고 저녁무렵 도서관에 가보니 과연 열람실앞의 안내컴퓨터 화면에는 페이퍼작성에 필요한 철학부분의 책이 거의 대출중이었다! 그래도 내책은 따로 고이 모셔져 있었지... 사자에게 책을받아 학생카드를 대출날자를 등록시켜놓고 책뒤의 바코드를 자동 인식 검출기에다 살짝 그어대기만 하면 모든 사항은 끝! 그런데 사서옆에 철학개론 교수님이 계신것이였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사자에게 책을 받아가려는 순간, 교수님이 그 책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려면 나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반강제적으로 책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는 틀림이 없다. 호호호...

2012년 4월 16일(월) 아, 가슴앓이 이 얼마나... 대학의 진수를 진정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었다. 안을 자라가 없어 선채로 그렇게 끝날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었다. ●강창성/중앙대산업정보학과

아, 가슴앓이 이 얼마나... 대학의 진수를 진정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었다. 안을 자라가 없어 선채로 그렇게 끝날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었다. ●강창성/중앙대산업정보학과

21세기 테크노파시대의 대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금성의 첨단기술이 실현됩니다. 금성은 '95년에 발사될 통신위성 '무궁화호' 제작에 참여. 우리의 위성시대를 열어갑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유수 대학들과 국제화상강의를 실현, 학문진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택수업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대학생들이 이루어지도록 컴퓨터통신, LAN, VAN, 광통신, 위성통신 등 ISDN 구축에 금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란 금성의 첨단 전기·전자기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이루는 기술환경을 말합니다.

GS 금성